



Russia

블라디보스토크지사

러시아 유기농 식품산업의 대세, 유기농 이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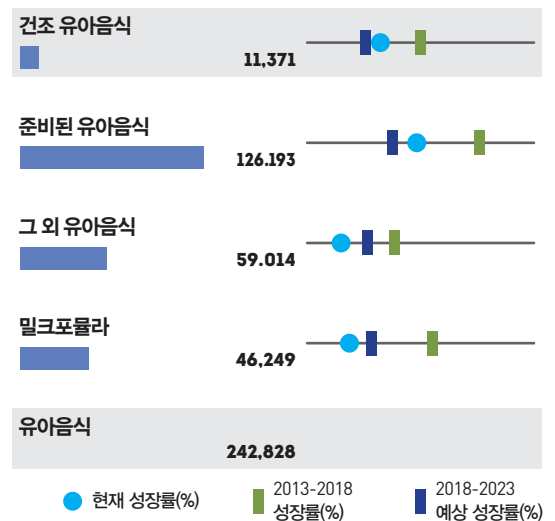
식품산업의 대세로 떠오른 유기농 이유식

전 세계적 열풍이 불고 있는 건강트렌드는 러시아의 식품풍속 도까지 바뀐놓았다. 러시아의 건강트렌드가 가장 많이 반영된 분야는 유기농식품 분야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에서 유기농법이 시행된다. 살충제와 항생제, 식품 첨가물, 향신료 등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업체만 '유기농'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으로, 유기농 제품인증 또한 필수이다. 이 법안은 빠르게 성장하는 러시아의 건강식품에 제대로 된 가이드를 제시해주려는 첫 번째 시도이다. 이를 위해 유기농 연구기관, 농장, 바이오 및 환경제품 제조업체에 공공기금이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다.

당장은 러시아인들이 높은 가격에 민감해 유기농식품 시장이 큰 성장을 이루기는 어렵지만 식품기업들이 앞 다투어 신제품을 출시하며 이 시장을 확장시켜가고 있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세에 있기는 하지만, 유기농제품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주 소비층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지불할 만한 여유를 지닌 집단이기에 앞으로의 시장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 러시아 유기농 이유식 성장추세 |



여성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유기농 이유식 성장 이끈다

보통 유럽 국가에서 건강식품의 개념인 바이오, 유기농 및 에코라는 개념은 동일한 제품을 나타낸다. 따라서 지금까지 러시아의 소비자 대다수는 농산물, 유기농 등을 세분화시키지 않고 친자연적이고 건강한 식품 정도로만 인식해 왔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유기농 포장식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기농 이유식이 대세로 떠오르고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낮은 출산율 덕분에 인 것으로 보이며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더욱 아이의 건강에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농 이유식은 탄력적 시장으로 아이에게 돈을 아끼지 말라는 러시아의 금언처럼, 대다수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유기농 이유식에는 지갑을 활짝 열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주방에서 직접 요리를 하던 과거와 달리, 반조리 혹은 완전조리식품의 구매율이 늘어나고 있어 제품의 위생, 출처, 원재료 생산자의 생산이력 등을 꼼꼼히 따지며 구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유식 생산자들은 이유식과 원재료 관련 법안을 준수하기에, 여성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이유식 시장, 그중에서도 유기농 포장식품 시장은 현재 성장가도를 달리고 있는데 2018년에 7%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시장가치는 40억 루블(약 745억 6,000만 원)에 달하고 2023년에는 63억 루블(약 1,174억 3,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기대주이다.

| 유기농 포장식품 시장 참가자 |

Company	2014	2015	2016	2017	2018
Hipp Rus ○○○	59.4	60.2	51.1	52.1	52.4
Ameria Rus ○○○	0.4	0.6	0.7	0.8	0.8
Alce Nero & Mielizia SpA	0.3	0.4	0.4	0.5	0.5
Gepa - The Fair Trade Co	0.2	0.2	0.3	0.3	0.3
Keninklijke Wessanen NV	0.2	0.2	0.2	0.2	0.2
Human Milchunion eG	1.2	0.6	-	-	-
Hain Celestial Group Inc, The	1.0	0.6	-	-	-
Ritter Sport Shokoland ○○○	-	-	-	-	-
Other	37.3	37.3	47.2	46.1	45.8
Total	100	100	100	100	100

유기농 이유식 시장, 아직은 해외브랜드가 주도

유기농 이유식 시장의 선두주자를 알아보면, 가장 먼저 Hipp Rus를 떠올릴 수 있다. Hipp Rus는 독일 브랜드이지만, 2018 유기농 이유식 시장매출의 52.4%를 점유했다. 러시아는 이유식의 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수입을 해왔고, 그에 따라서 해외 브랜드들이 러시아 이유식시장을 선점해왔으며 러시아에서도 생산자가 늘어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주로 EU국가에서 들어오는 수입 브랜드가 많이 우세하다.

| 러시아의 유기농 인증마크 |



| 매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hipp제품 |



Key Point

서부도시를 중심으로 건강한 이미지 홍보해야 유요

이유식의 구매는 주로 대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민들은 바쁘고,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쓸 여력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기준으로 이유식의 45%가 수도 모스크바에서 판매되었다. 이렇게 도시 거주자들의 이유식 구매율이 높기 때문에 유기농 이유식 판매를 원한다면 서부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낫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유식을 조리할 때 필요한 원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품을 수입하는 비용이 높다. 러시아 내에서 한국식품이 건강하고 안전하다는 이미지로 자리 잡는다면, 러시아 이유식 시장에서도 한국제품의 점유율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